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117 (지극한 근심에)	512 (주여 우리는 지금)	175 (이보다 더 큰 은혜와)	123 (십자가 지고 가시는)

제 1독서 | 탈출기 3,1-8. 13-15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화답송 |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네.

○(좌)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우)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좌) 주님은 정의를 펼치시고, 억눌린 이 모두에게 공정을 베푸시네. 당신의 길을 모세에게, 당신의 업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네. ◎

○(우)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

제 2독서 | 코린토 1서 10,1-6. 10-12

<서 있다고 생각하는 이는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복음 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루카 13,1-9

오늘의 복음 (루카 13,1-9)

바로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래아 사람들을 죽여 그들이 바치려던 제물을 피로 물들게 한 일을 예수님께 알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그 갈릴래아 사람들이 그러한 변을 당하였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래아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것처럼 멸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지면서 깔려 죽은 그 열여덟 사람, 너희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잘못을 하였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밭에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그 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포도 재배인에게 일렀다.

'보게, 내가 삼 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네.

그러니 이것을 잘라 버리게. 땅만 버릴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자 포도 재배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주인님, 이 나무를 올해만 그냥 두시지요.

그동안에 제가 그 돌레를 파서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겠지요.

그러지 않으면 잘라 버리십시오."

기도의 방정식

수학에서 방정식이란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 혹은 거짓이 결정되는 등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X + 2 = 5'라는 등식이 있다고 할 때, X의 값이 3일 때에 이 등식은 참이 되지요. 따라서 방정식을 풀 때는 X의 올바른 값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정식 문제를 내시는 듯한 부분이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처럼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X의 올바른 값을 찾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주신 방정식을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문제의 종류는 '기도의 방정식'입니다.

루카복음 11,5-13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도'(1-4절)를 알려주신 이후에, 기도하는 이의 자세에 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간청하라는 것'(5-8절)과 그러한 마음으로 '계속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듯이 기도하라는 것'(9-13절)입니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9-10절) 즉, 예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찾고, 청하고,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이 구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성령'이지요. '끊임없이 기도'(5-8절)할 것을, 그리고 '청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마음으로 기도'(9-12절)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느님께서는 그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13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의 방정식을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청하고 싶은 내용을 X라고 해 봅시다. 그에 더해서 기도하는 방법으로는 끊임없이 청하고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성령입니다. 이것을 수식화해 보자면, '**X(우리의 기도 내용) + 끊임없이 찾고 청하기 = 성령을 보내주심**' 이 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 내용인 X의 값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끊임없이 찾고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아마도, 개인의 명예나 사적인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내용의 기도는 성령을 받기에 적절한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치셨듯이,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용서하기 위한 용기와 지혜를 청할 때, 하느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이의 없습니다.>

-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마태 5.1-12)



‘마음이 가난한 자··’ 로부터 시작되는 산상수훈처럼 널리 알려지고, 신자 아닌 일반인들도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도 아마 드물 것입니다.

인간에게 말이 있어 온 후, 말하여진 말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도 하더군요. 처음엔 저도 남들이 좋다고 하니깐 덩달아서 좋게 들렸습니다. 좋은 시를 읽을 때 그 뜻을 일일이 따지지 않더라도 마음에 들어오는 몇 구절과 음률만으로도 감동을 느낄 수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군중들에게 그렇게 설교하신 것은 새겨듣고 그대로 실행하라는 뜻이지 입술로 읊어대기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막상 뜻을 알고 읽기로 마음먹으니까 저는 첫 구절부터 걸리고 맙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들의 옹호자로 오신 것은 알겠지만 마음까지 가난하라니요? 저는 빈한한 농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어려서부터 집안이나 마을 어른들로부터 가장 자주 들어온 말이 아무리 없이 살아도 마음만은 넉넉해야 한다는 소리였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도 자신을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언정 남에게는 후하게 나누는 것을 사람 노릇의 으뜸으로 쳤고, 그런 전통적인 미덕에 의해 아무리 혹독한 흉년이나 전쟁 중에도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 씩씩이야말로 마음의 부자 노릇이라고 믿어왔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마음이 가난한 이에게 최고의 상을 준다고 하는지. 그건 당신이 일관되게 설하신 사랑이나 나눔의 정신과도 앞뒤가 안 맞아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마음을 우리가 물질적인 걸 쟁여놓은 창고와 비유해서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부자들의 창고일수록 보물로 가득 차 있을 테니 보나 마나 문을 꼭꼭 걸어 잠가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별로 대수로울 것이 있을 리 없는 빈자의 창고는 문단속이 허술할밖에요. 아예 활짝 열어젖혀 놓고 산다 한들 불안할 것도, 누굴 의심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혹시 빈자의 창고처럼 열린 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한 꼭 찬 창고란 더 이상 물건을 들일 수 없는 창고라는 뜻도 될 테지요. 비록 자기가 지닌 것보다 더 나은 보물이 있다고 해도 그는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주입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남의 말을 전혀 들을 줄 모르는 사람, 머릿속이 온통 지식으로 꽉 차서 단순한 진리도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교만할까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도 될 것 같군요.

또 보물이 가득 찬 창고를 가진 부자는 한시도 마음이 놓일 날이 없을 것입니다. 튼튼한 자물쇠를 채워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심복으로 창고지기를 삼고 나니 한시름 놓은 것 같아 생전 처음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나 창고로부터 몸이 멀어질수록 마음은 창고한테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믿기로 한 창고지기가 못 미더워지면서,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지 이 세상에 누굴 믿나 싶어 다시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창고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마음이 가난한 이는 자유인을 일컫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진실로 열린 마음을 가진 겸손한 자유인이라면 하늘나라를 상으로 받을 만하군요. 예수님, 당신 말씀에 이의 없습니다.

공지 사항

1. 사순시기 십자가의 길

- 주일 미사 전, 2시 30분에 시작
- - 사순 제 3주일: 마태오
- - 사순 제 4주일: 요한
- - 사순 제 5주일: 사목회

2. 사순시기 중 성체조배

- 사순시기를 맞이하여, **매주 목요일, 저녁 7~8시** 아란다 성당에서 성체조배가 있습니다.
- 성체조배 시간 중에 고해성사가 가능합니다.

3. 영적독서 모임 안내

- 매주 화요일 목주기도가 끝난 후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을 위하여 아래 분량을 읽어주세요.
 - a. <가톨릭시즘> 187-285p
 - b. <영성, 하느님을 바라보다>, 141-162p

4. 사순시기 고해성사

- 사순 제 3주일: 마르코
- 사순 제 4주일: 마태오
- 사순 제 5주일: 전체



“Interior intimo meo et superior summo meo.”

“당신께서는 제 가장 내밀한 데보다 더 내밀하게 계셨고, 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데보다 더 높이 계셨습니다.” (고백록, 3.6.11).

| 미사 참례자 수 |

3월 9일	유아·청소년: 12명	성인: 45명
3월 16일	유아·청소년: 16명	성인: 47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3월 23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	------------------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3월 23일)	요한반
다음주 (4월 2일)	루카반

| 우리들의 정성 | (3월 15일 ~ 3월 21일)

봉 헌 금	\$ 389				
교 무 금	\$ 400				
구민식	권묘순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장호훈	정은영	주정자			

| 기도 지향 |

- * 복사단 아이들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 * 서원석 미카엘, 교황 프란치스코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